조계종, 하안거 결제 6월 6일로 연기

〈윤4월 15일〉

수좌회, 전국 선원 공문 발송
국가 · 종단지침 발맞춘 결단
6월 6일~9월 2일로 변경돼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안거 정진 중인 스님들의 모습.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하안거 결제일이 한달 연기된 윤4월15일로 변경됐다.

올해 조계종 하안거 결제일이 윤4월 15일로 한달 연기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처님오신날이 윤4월 8일 기준으로 연기된데 이어, 전국선원수좌회가 이례적 결단을 내렸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대표 의정 · 영진)는 3월 23일 전국 선원의 유나 · 선원장 스님을 대상으로 '경자년 하안거 입제 일정 변경 협조의 건'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올 하안거 일정을 한달 연기한 윤달 음력 4월 15일(양력 6월 6일)을 입제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선원수좌회는 공문 발송에 앞서 전국 선원의 구참 · 선원장 스님들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90% 이상의 스님들이 현재 시국을 감안해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수좌회는 스님들의 여론을 반영해 통신회의를 거쳐 하안거 결제일을 변경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선 선원들은 수좌회 권고사항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기 상황에 맞게 일정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문 발송에 앞서 선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올 하안거 일정은 상당부분 변경될 전망이다.

수좌회는 공문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전세계는 물론, 국내 또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각 학교의 개학이 다시 연기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등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단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음력 윤4월8일인 4월40일로 연기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수좌회는 "하안거 일정 변경을 통해 최상승 납자들이 코로나19에도 의연하고 청정하며 국민건강을 우선하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세계인과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선원수좌회 지침이 공문을 통해 공표됨에 따라, 전국 조계종 선원들은 올 하안거 일정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 수용시 입제일은 6월6일, 해제일은 9월 2일로 변경된다.

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은 "코로나19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종단이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종단의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지침'이 내려진 후 선원수좌회로 수좌들의 문의가 이어졌고, 수좌회 역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와 종단과 발맞춰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안거 일정을 변경키로 한 것은 사실 수좌회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종단지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선원에 방부를 들일 수좌들의 안전한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안거 일정의 경우 전국선원수좌회가 일정부분 관할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후 각 선원의 사정에 맞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좌회의 이번 결정은 큰 틀에서 종단 지침을 수용한 결과이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2일 4차 긴급지침을 시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사찰에 법회 중단 등을 권고한 지침 시행기간을 4월 19일까지로 연장했다.

고창 선운사 만세루 보물 승격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조선 사찰공간 변화 보여줘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만세루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 ·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북 고창군에 있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53호 '선운사 만세루'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선운사 만세루는 1620년(광해군 12년)에 대양루로 지어졌다가 화재로 소실된 것을 1752년(영조 28년)에 다시 지은 전각이다. 정면 9칸, 옆면 2칸 규모의 익공계 단층건물이며, 맞배지붕으로 현재까지 잘 보존돼 있다.

처음에는 중층 누각구조로 지었으나 재건하면서 현재와 같은 단층 건물로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누각을 불전의 연장 공간으로 꾸미려는 조선 후기 사찰공간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만세루의 특징은 사찰 누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인 정면 9칸이라는 점이다. 현존하는 사찰 누각은 대체로 정면 3칸이 주류이고, 5칸이나 7칸 규모도 있으나, 만세루처럼 9칸 규모는 흔치 않다.

만세루 가운데 3칸은 앞뒤 외곽기둥 위에 대들보를 걸었고, 좌우 각 3칸에는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만세루 전경.

가운데에 각각 높은 기둥을 세워 양쪽에 맞보를 거는 방식을 취했다. 하나의 건물 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보를 걸어 구조의 안전을 꾀하고 누각의 중앙공간을 강조한 특징이 있다.

문화재청은 "선운사 만세루는 조선 후기 불교사원의 누각건물이 시대 흐름과 기능에 맞추어 그 구조를 적절하게 변용한 뛰어난 사례"라면서 "동시에 구조적으로 독창성 가득한 건축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고 지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선운사 만세루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산 연등축제 '코로나 19 극복 기도'로 장엄

축제조직위, 송상현 광장서
4월 30일~5월 28일 봉행

전통등 전시 및 릴레이기도
사회 속 바른 역할 제시 모범

부산불교는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과 연합대회를 취소하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장엄등을 밝히고 릴레이 기도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해 점등식 자료사진.

부산 불교가 시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부처님오신날을 상징하는 연등행렬과 봉축연합대회를 모두 취소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하며 지혜를 상징하는 법등(法燈)만을 밝힌다. 오직 국민들의 건강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아울러 부산불교는 4월 30일~5월 28일 총 29일 간 치유를 위한 기도에 앞장서며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참된 자비 정신을 밝힌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 경선)는 3월 26일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연등축제'는 코로나19 극복과 부산발전 및 안녕을 위한 릴레이 기도정진과 전통등 전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무총장 정산 스님은 "봉축연합대회와 연등행렬을 취소하기까지 회장 스님 및 임원진들의 고뇌와 토론이 있었다"며 "하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나라의 안녕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부산연등축제로 마련되는 '전통등 전시'는 4월 30일~5월 28일 송상현 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점등식은 4월 30일 오후 6시 송상현광장 특설 무대에서 개최된다. 전통등은 대형 장엄등 100여점이 전시되며 각 사찰에서 마련한 사찰 출품등, 각종 구조물, 거리등이 화려하게 도시를 수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 16개구 · 군 불교연합회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며 각 구군에 장엄등을 밝힐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는 점등식도 최소한의 인원으로만 진행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위해 체험 부스도 마련하지 않는다. 방문하는 시민들에겐 거리 지키기를 강조하며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소원지 작성에만 동참하도록 권유한다. 소원지 작성과 더불어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자비나눔실천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릴레이기도 입재는 점등식 당일이며 29일 간 매일 오후 6시 송상현 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릴레이기도는 16개 구 · 군 불교연합회 스님들과 종단 대표들이 담당하며 신도들은 참석할 수 없다. 스님들은 부산발전 및 안녕을 발원하며 보배경과 약사여래경 정진으로 기도에 앞장선다. 신도들의 안전을 위해 조직위원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로 기도 동참을 권유하고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이 기간동안 각 사찰에서도 기도는 이어진다. 봉축을 기념하는 4월 30일~5월 30일 동안 부산 전 사찰은 사시예불에서 보배경과 약사여래경 정진으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한다.

사무총장 정산 스님은 "종교가 사회 속에서 갖춰야 할 바른 역할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사, 마애약사불 기도법회 시작

4월 4일 오후1시 첫 법회
유튜브 '해인사 TV'로 중계



가야산 중봉 마애약사여래불.

법보종찰 해인사가 가야산 중봉 마애약사여래불 기도법회를 시작한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마애약사여래불 기도법회'를 개설하고 4월 4일 오후 1시 기도 법회를 가야산 중봉 마애약사여래불전에서 개최했다.

가야산 중봉 마애약사여래불은 예부터 마을 혹은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공을 올리고 지극히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동안 해인사는 기존 등산로를 폐쇄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해 왔으며 해인총림 대중의 예배공간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해인사는 "가야산 중봉 마애약사여래불의 개방과 기도 법회 개설을 원하는 불자들이 많았고 지속적인 요청이 이어졌다"며 "그 의견을 수렴해 임회에서 법회 개설을 의결하고 정기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인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정기적으로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며, 이번 첫 법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림 사부대중 만 참석토록 했다. 불자들은 인터넷 유튜브 '해인사 TV' 실시간 중계를 통해 함께 기도할 수 있다.

마애약사여래불 기도법회는 특별히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기도 법회는 천수경 독송을 시작해 육법공양이 이어지며 주지 현응 스님의 설단 개설 인사말, 약사불공이 진행된다. 아울러 재난극복과 질병 치유를 발원하며 보배경 기도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수 강 생 귀장술비법 모집안내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